

‘인공지능 탐구활동 지원사업’ 동아리 진로 탐색

국립광주과학관, 호남권 초·중·고 11개교 활동 지원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2025년 인공지능 탐구활동 지원사업에 최종 선발된 인공지능 동아리 11개 팀이 지난 19일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2년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인공지능 탐구활동 지원사업은 지난 3월 호남권 초·중·고등학교 인공지능 동아리를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했으며, 선정심사 결과 총 11개의 동아리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동아리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4개교로 총 150명이 참여하며, 지도교사와 함께 10월까지 탐구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국립광주과학관에서는 인공지능 탐구활동 동아리 학생들에게 ‘탐구활동 물품 및 활동비 지

원’, ‘인공지능 전문가 컨설팅’, ‘방학 기간 중 인공지능 관련 연구기관 탐방하는 인공지능 탐사대 운영’, ‘인공지능 연계 행사 초청’, ‘과학관 상설전시관 무료입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동아리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배우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활동 동아리는 신청한 주제에 맞춰 올해 9월까지 다양한 인공지능 탐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10월 성과발표회를 통해 탐구 결과물을 현장에서 시연하고 발표한다.

우수 활동 동아리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비롯해 광주시교육감상, 국립광주과학관장상 등이 수여된다.

이재영 연구원은 “인공지능 탐구활동 지원을



국립광주과학관의 ‘2025 인공지능 탐구활동 지원사업’에 최종 선발된 인공지능 동아리 11개팀이 지난 19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통해서 호남권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많은 관심이 가지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임택 동구청장, 광주 ‘나눔리더 1호’ 가입

지역사회 문제 해결 동참…“기부문화 확산을”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리더’ 1호로 가입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1일 동구청 접견실에서 임택 나눔리더 1호 가입식을 개최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개인 자격으로 기부에 참여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나눔리더 1호’ 인증패를 받았다.

기부자에게는 나눔리더·나눔기업 인증패 수여와 특례기부금 영수증 발행, 세액 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동구는 앞으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더 많은 이웃이 자발적으로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눔 히어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개인이나 단체가 100만원 이상을 일시 기부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택 동구청장은 “나눔은 마음을 전하는 작지만 큰 실천이다”며 “동구가 먼저 움직여 따뜻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말했다.

박흥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이번 기부는 지역 리더로서 의미 있는 결단이다”며 “앞으로 더 많은 나눔리더와 기업이 캠페인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남대병원,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500건 달성

지방 병원 최초…“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최선”

전남대학교병원은 지방 병원 최초로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TAVI) 500건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대표적인 치료법이다. 시술 시간이 짧고, 전신마취 없이 진행 가능하며 통증이 적어 고령·고위험 환자에게 권장된다. 개흉술이 필요한 수술에 비해 덜 침습적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적응증 범위가 증가하는 추세다.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는 지난 2015년 지방 병원 최초로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실시, 2022년 3월 200건을 돌파하고, 최근 500건을 넘어 서게 됐다. 특히 순환기내과는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시작한 이후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대한 치료 방향 설정을 위해 심장 통합 진료를 구성하고 주도로 진료하고 있다.

홍부외과, 마취과, 영상의학과, 이식혈관외과와 모여 어떤 치료 방식이 최선인지 매우 다학제 진료를 하고 있으며, 최적화된 치료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김주환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사진)는 “지역 사회 환자들이 수도권에서 치료받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대 국립아시아전당장에 김상욱 기획운영관 임명

문화예술 전문성 갖춰…임기 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제2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 김상욱 전당장 직무대리(사진)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당장의 임기는 3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인사발령을 통해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관을 2대 전당장으로 임명했다.

신임 전당장은 1991년 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200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정책관, 콘텐츠정책관, 관광산업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문화예술 산업 전반을 두루 섭렵한 전



문가다.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인도네시아 예술학 석사, 동국대 문화콘텐츠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2023년 8월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관을 역임했으며, 이강현 초대 전당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인 지난 2월 14일부터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저서로는 ‘문화 콘텐츠 산업 정책과 창조 산업’(2013), ‘4차산업시대의 문화콘텐츠산업’(2017) 등이 있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북구 운암동에 위치한 엠마우스복지관에서 메디체크어머니봉사단과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건협 광주전남지부, 엠마우스복지관 봉사활동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북구 운암동에 위치한 엠마우스복지관에서 메디체크어머니봉사단과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복지관 회원들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활동 참여자들은 교육장, 시설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박종석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본부장은 “정기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

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건협 광주전남지부는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협 광주전남지부는 봉사활동 외에도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연계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성금 기탁, 보건교육, 건강검진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PEOPLE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문선화 광주 동구의회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참여

광주 동구의회는 최근 문선화 의장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문제를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선화 의장은 김병수 광산구시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다.

문선화 의장은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다양한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 동구’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선화 동구의회의 의장은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임택 광주 동구청장과 이명숙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목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재향소방당우회

무등산 일원 산불예방 캠페인

광주재향소방당우회가 최근 무등산국립공원 일원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예방 홍보활동, 등산객 대상 안전 산행 지도, 응급상황 발생 시 신고 요령 안내, 산불 예방 홍보물품 배부, 등산로 주변 환경정화 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광주재향소방당우회는 2002년 설립된 퇴직 소방관 단체로, 2021년 광주시로부터 사단법인 광주시재향소방당우회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현재 130명의 회원이 화재예방 캠페인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만환 광주재향소방당우회장은 “영남지역에 기록적인 대형 산불을 겪은 만큼,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우리 산과 숲, 그리고 이곳을 찾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공군전우회 광주광역시지부 2025년도 정기총회=4월 22일 오후 6시 장소 : 화정택빌라 2층 연회장(광산구청 앞) 대상 : 광주·전남·전북 공군에비례 누구나 참석 가능(장교, 준사관, 부사관, 사병, 단기 사병, 퇴직 군무원 등). 010-2115-0945.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을센터. 문의 062-374-2818.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여.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

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운세 (음력 3월 25일)

48년생 명분에 현혹된다면 곤란해진다. 60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기쁜 일이 생긴다. 72년생 가능성이 미약하니 시도하지 말라. 84년생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라. 96년생 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 것. 51년생 문서로는 대로 잡아 두라. 63년생 신중을 기하면 경사가 따른다. 75년생 매끄러운 기고요 자연스럽다. 87년생 전업이나 사업은 삼가하라. 99년생 노력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다. 54년생 호사다마요 새옹지마로다. 66년생 모든 일을 대범하게 대처하라. 78년생 지금이 재산증식의 기회다. 90년생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57년생 지금 본때를 보여줘야 할 때. 69년생 귀하 것이 아니니 빨리 건네주라. 81년생 뒷사람과 서둘러 화해하라. 93년생 가까운 친인척을 만나보라.

49년생 결부 시킬 필요까지 없겠다. 61년생 새로운 수입으로 배로 늘어났다. 73년생 약속이 절대 이행되지 않는다. 85년생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생긴다. 97년생 친구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라. 52년생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되집어 보라. 64년생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으니 조심. 76년생 한번 일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날. 88년생 재능이 있으니 늦게라도 이뤄진다.

55년생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니 양보하라. 67년생 만족할만한 결과로 마무리 된다. 79년생 원하는 부동산 거래는 이뤄진다. 91년생 뒷사람에게 부탁하면 해결 될 것.

58년생 문서 결정은 다음으로 미루라. 70년생 신뢰하는 이가 더 많으니 안심. 82년생 고뇌는 삶을 순화시키기에 충분하다. 94년생 돈소문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날.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50년생 다 끝낸 일이 다시 불거진다. 62년생 자녀 문제로 고민하게 된다. 74년생 거래 운이 들어오니 손리대로 처리. 86년생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98년생 해를 피하려는 것이 급선무.

53년생 해로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65년생 돈 보다도 신용을 더 중요시 하라. 77년생 정도만 지킬 수 있다면 문제없다. 89년생 길사로 인해서 탄력이 붙겠다.

56년생 일에 있어 소용이 없을 것이다. 68년생 이득이 따르는 거래가 이뤄진다. 80년생 나의 능력이 녹슬지 않았다. 92년생 지금 당장 머리부터 식히라.

59년생 허점이 보이니 철저히 살펴보라. 71년생 무언가 잘 되어가는 징조가 보인다. 83년생 아직은 시기상조임. 95년생 돈이 막히는 날.